A부터 Z까지 '팀 밸런스'…최강희 감독의 새 영입 전략

무리퀴 접촉 거절…명성보다 밸런스 우선
브라질 날개 티아고 1순위 "상당히 긍정적"
축구계 "김신욱 중심의 공격진 개편 염두"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챔피언 전북 현대의 겨울 선수이적시장은 떠들썩하지 않다. 그래도 면면은 화려하다. 지난해 클래식 도움왕 손준호(26)에 아마추어 최대어로 꼽힌 골키퍼 송범근(21)을 영입했다. 국가대표 중앙수비수 홍정호(29)의 합류도 임박했다. 장쑤 쑤닝(중국)에서 임대 신분으로 전북 유니폼을 입을 전망이다. 장쑤가 어려운 판단을 했고, 직접 선수가 최강희 감독과 만나 "전북에서 부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물론 끝은 아니다. 외국인선수다. 사실상 전면적인 개편이다. 에두(37)~에델(31·이상 브라질)과 결별하며 현재 전북에 남은 용병은 윙 포워드 겸 측면 날개 로페즈(이상 브라질)가 유일하다. 아시아쿼터를 포함해 카드 3장을 더 활용할 수 있다. 최 감독은 4명을 무조건 채우려하지 않는다. 마땅한 자원이 없다면 로페즈만으로도 전반기까지는 잘 버텨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단 브라질 날개 티아고(25)가 보강 1순위다. 소속팀 알 힐랄(사우디아라비아)과의 복잡한 문제도 거의 해결됐다. 티아고와 전북이 접촉한 건 지난해 겨울과 여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로 그만큼 쏟는 정성이 각별하다. 최 감독은 "티아고가 전북을 원한다. 과거보다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중동 클럽은 언제든 마음을 돌릴 수 있어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전북 최강희 감독▶

전북은 동시에 김신욱(30)~이동국(39)에 시너지를 더할 최전방 후보군을 물색 중이다. K리그 최강으로 아시아 축구계에 정평이 난 전북에게 수많은 에이전트들과 선수들이 접촉해오지만 마구잡이로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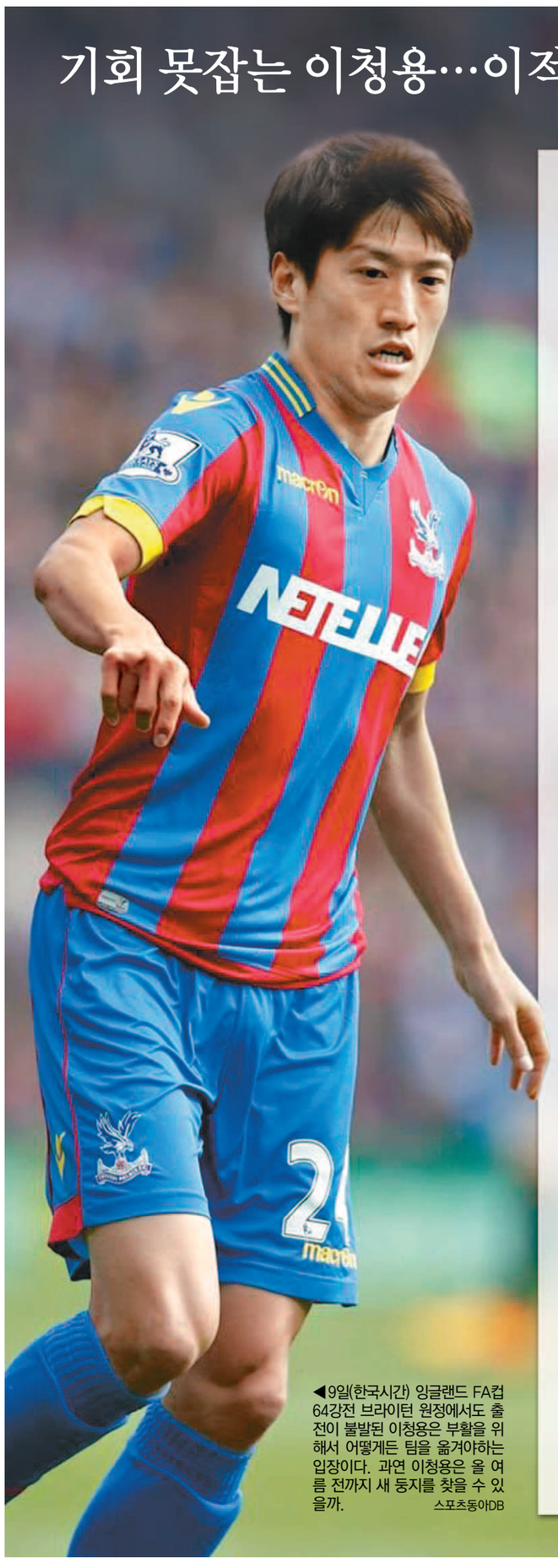
기준은 간단하다. A부터 Z까지 밸런스다. 명성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지금은 빠르고, 공간 침투 능력이 우수한 2선 자원을 구한다. 이 과정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광저우 에버그란데(중국)의 전성기를 일구고 떠났다가 지난해 7월 돌아와 FA(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린 무리퀴(32·브라질)도 입단을 타진해왔으나 최 감독이 퇴짜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이 거절한 무리퀴는 일본 J리그 2팀과 협상 중이다.

많은 축구인들은 "전북 벤치가 김신욱 중심의 공격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비슷한 스타일의 스트라이커 3명(에두·이동국·김신욱)에게 최 감독이 전부 마음의 짐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회 못잡는 이청용…이적이냐, K리그 복귀냐?

유럽 잔류 희망하지만 영입 관심 보이는 팀 없어
올 여름 계약 끝…K리그행 땐 서울과 우선 협상


◀9일(한국시간) 잉글랜드 FA컵 64강전 브라이턴 원정에서도 출전이 불발된 이청용은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든 팀을 옮겨야하는 입장이다. 과연 이청용은 올 여름 전까지 새 둥지를 찾을 수 있을까. 스포츠동아DB

크리스털 팰리스의 이청용(30)은 9일(한국시간) 영국 브라이턴 팔머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FA컵 64강전 브라이턴과의 원정경기 출전선수명단(18명)에 포함됐다. 하지만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1-2로 패해 대회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최근 들어 이청용은 출전선수명단에 자주 포함되지만 여전히 출전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2017~2018시즌 프리미어리그 3경기, 컵대회 3경기 출전이 전부다.

최근 영국을 방문해 이청용을 만나고 돌아온 축구국가대표팀 신태용(48) 감독은 "(이)청용이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겠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이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청용의 이적설이 뒤를 이었다. K리그 복귀설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청용은 유럽프로축구 무대에 잔류하는 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이적할 팀을 알아보고 있다. 일단 K리그 복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적시장에 밝은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청용은 올해 여름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계약기간이 끝난다. 크리스털 팰리스가 최소한의 이적료라도 챙기려면 이번 겨울이적시장에서 이청용의 이적을 성사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청용의 이적 관련된 뉴스는 유럽 현지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2~3시즌 간 출전기록이 많지 않은 이청용의 영입에 적극성을 보이는 팀이 아직은 없는 모양이다.

이청용의 현재 상황은 이전 아스널에서 출전기회를 잡지 못했던 박주영(FC서울)과 흡사해 보인다. 박주영은 아스널 시절 출전기회가 없어 고생하다 결국 프로에 데뷔했던 서울로 컴백했다. 당시 서울 사령탑이었던 최용수 감독이 2년에 걸쳐 박주영에게 컴백을 권유한 끝에 이적이 성사됐다.

박주영도 당초에는 서울 복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진 않았다.

올해로 이청용의 나이는 만으로 30살이다. 유럽 내에서 베테랑선수가 설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청용이 자신을 원하는 유럽 내 다른 클럽으로의 이적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유럽 내에서 클럽을 찾지 못하고 K리그로 돌아온다면 서울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서울은 2009년 볼턴 원더러스로 이청용을 이적시킬 때 K리그 복귀 시 우선협상권을 갖는 단서조항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 이청용이 돌아오겠다는 의사만 보인다면 협상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국의 한 언론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풀럼이 영입을 고려해볼 만한 공격수 5명에 이청용의 이름을 포함시켰다. 이 언론은 이청용이 풀럼의 연고지 런던에 머물고 있고,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라고 평가했다. 구단의 관심이 아닌 언론의 제언 정도의 기사였다. 실제로 풀럼이 이청용 영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차두리, 러 월드컵 나서는 레전드 출신 코치"

FIFA, 지도자 신분 축구 레전드 소개
앙리·클로제·데샹 등과 어깨 나란히


차두리

전 세계인의 축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서는 수많은 스타들이 그라운드를 누볐다. 한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도 흐르는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다. 선수로서 월드컵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은 젊음의 특권이다.

그러나 '축구'라는 틀에서라면 선수 신분으로만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IFA는 지도자 신분으로 2018 러시아월드컵에 나서는 레전드를 최근 소개했다. 첫손에 꼽히는 레전드는 티에리 앙리(프랑스)다.

그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손꼽히던 선수다. 1998프랑스월드컵에서 우승을 경험하는 등 무려 4차례(1998 프랑스, 2002한일, 2006독일, 2010남아공)나 월드컵 무대를 밟았다. 현역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2016년부터 벨기에 대표팀 로베르토 마르티네즈(스페인) 감독을 돕는 수석코치로 자리하고 있다. 선수로서는 프랑스 축구의 전성시대를 이끌었지만,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월드컵은 벨기에 소속으로 맞이하게 됐다.

2014브라질월드컵까지만 해도 독일의 스트라이커로 뛰었던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도 지도자로 러시아월드컵 무대에 선다. 월드컵 역대 최다득점 기록 보유자(16골)인 클로제는 2016년 현역은퇴 직후 요하임 뢰브(독일) 감독의 부름을 받아 코칭스태프에 합류했다.

1998프랑스월드컵 당시 프랑스의 주장이었던 디디에 데샹은 감독으로서 2회 연속 월드컵 지휘봉을 잡았다. 2012년 프랑스 대표팀에 부임해 6년째 팀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년 유럽선수권(유로2020)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2014브라질월드컵 때는 프랑스를 8강에 올려놓았다.

FIFA는 세네갈의 알리우 시세 감독(2002한일월드컵 출전), 크로아티아의 이비차 올리치(2002한일월드컵, 2006독일월드컵, 2014브라질월드컵 출전)코치, 스웨덴의 욘달 토마손(2002한일월드컵, 2010남아공월드컵 출전) 코치 등과 함께 한국축구대표팀의 차두리 코치도 소개했다. 차 코치는 2002한일월드컵에서는 공격수, 2010남아공월드컵에서는 수비수로 출전했다. FIFA는 '한국의 전설적인 선수 차범근의 아들'이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무리뉴-콘테 감독, 연초부터 '말 펀치' 난타

〈맨유〉 〈첼시〉

인조이 EPL

"광대" "승부조작" "속 좁은 사람"…
두 명장 연일 '진흙탕 설전' 관심


조세 무리뉴 감독


안토니오 콘테 감독

대표적인 라이벌로 통하는 첼시 안토니오 콘테(49) 감독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조세 무리뉴(55) 감독이 연초 화끈하게 붙었다. 예전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 펀치를 날리며 신경전을 벌여왔지만 이번에는 관심이 더욱 뜨겁다.

시작은 4일(이하 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무리뉴가 맨유를 향한 헌신을 질문한 기자에게 "내가 터치라인에서 광대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열정을 잃은 것인가? 나는 지금처럼 나대로 성숙하게 행동하는 것이 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터치라인에서 미친 사람처럼 굴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본격적인 언쟁은 다음날 첼시의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무리뉴의 발언에 대한 콘테의 생각을 물으면서 시작됐다.

콘테는 "무리뉴가 자신의 과거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화를 냈다. 과거 콘테의 과한 세리머니를 무리뉴가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광대'라고 표현한 대목을 두고 간접적으로 자신을 비꼬았다고 생각해서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 뜨겁게 달아오른 두 사람의 신경전은 취재진이 당사자의 말을 서로에게 전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무리뉴는 6일 더비 카운티와의 FA컵 경기 직후 "광대라는 단어는 나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콘테에게 던진) 기자의 질문도 잘못됐고, 콘테의 답도 강했다. 물론 나도 예전에 터치라인에서 분명 실수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수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 승부조작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 언론은 이 발언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콘테가 2012~201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시에나 감독 시절 승부조작 혐의로 4개월 동안 활동정지를 당했을 때를 비꼰 것이라며 크게 보도했다. 당시 콘테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무리뉴의 발언으로 다시 화제가 됐다.

다음날 화가 잔뜩 난 콘테는 노리치와의 FA컵 경기 뒤 "누군가 진실을 모르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경우 그 사람은 '속 좁은 사람(Little man)'이다"고 되받아쳤다. 그는 이어 "과거 많은 경우에 그는 속 좁은 사람이었고, 현재도 속이 좁고 분명 미래에도 속이 좁은 사람일 것"이라고 반격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콘테는 무리뉴와 전 레스터시티 감독 클라우디우 라니에리의 관계도 언급했다. "난 무리뉴가 라니에리의 영어 실력을 비꼰 장면을 기억한다. 그러나 라니에리가 경질되자 갑자기 라니에리의 이니셜이 새겨진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가짜이고,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대놓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콘테는 "첼시-맨유전이 언제인가? (무리뉴는) 언젠가 방에서 나와 만나 이 발언들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가 나와 단둘이 방에서 만날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얼굴을 붉혔다. 이처럼 2018년 새해 벽두에 두 유명 감독의 쉼 없이 이어지는 말싸움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영국 언론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런던(영국) | 허유미 통신원

이창민, 결국 UAE행 무산…다시 제주로

메디컬테스트 받고도 최종 결렬


이창민

미드필더 이창민(24)이 다시 제주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는다. 이창민은 당초 아랍에미리트(UAE) 샤밥 알 아흘리 이적을 위해 메디컬테스트까지 마쳤으나 최종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8일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제주유나이티드의 클럽하우스로 돌아왔다.

해외진출 무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UAE 알 와흐다와 이적협상을 벌였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해 제주의 주축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와 K리그에서 좋은 능력을 자랑한 덕분에 가치가 높아졌다. 지난해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서 26경기에 출전해 5골·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위 등극에 큰 역할을 해냈다.

원소속팀 제주로 돌아온 이창민은 9일 태국 치앙마이로 떠나 전지훈련에 합류했다. 제주로서는 이번 계약 결렬로 전력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이창민은 UAE 현지에서 메디컬테스트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적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감이 클 수도 있다. 이창민으로서는 새 마음 새 출발이 필요한데 제주 구단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구단 관계자는 "멘탈이 강한 선수다. 작년이나 이번에나 '반드시 이적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좋은 조건이 왔으니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큰 동요는 없는 것 같다. 마음을 잘 추스르고 팀 훈련에 참여할 것이다"며 신뢰를 나타냈다.

정지욱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